13 요한복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성경말씀: 요4:1-30

3장부터 드디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함, 3장 니고데모 이야기,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자기 제자들, 사마리아 사람들, 귀인과 그의 가족: 요한의 기록 AD 90년경, 사도바울의 서신서 모두 완성

이 시점에서 요한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1:16), 그 은혜의 복음의 관점에서 여러 사람들의 사건 기록,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다른 세 복음서는 주로 역사적인 사건 기록, 대비

요한복음 기사들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음이 시작되고 성장하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

또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사람마다 다 다르다. 천편일률적으로 외우는 방식 No!

사람들과의 대화, 그 사람의 필요 파악, 딱 핵심만 말한다. 니고데모: 다시 태어나야 한다.

수가성 여인: 서로 피가 다른 사람, 유대인들과 원수, 예배 문제로 시작해서 자신이 메시아 증언

주님의 사역(1-5)

바리새인들의 방해, 특별히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 경쟁하게 만듦, 그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

위로 가는 길 세 가지: 왼쪽 지중해 해안, 오른쪽 요르단 동쪽 페레아, 사마리아 통과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통과를 꺼렸다. 오랫동안의 반목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북쪽에는 갈릴리가, 남쪽에는 유대가 있었고 동쪽과 서쪽에는 요르단과 지중해가 있었다. 이곳은 처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에게 배정된 영토의 일부였다(눅17:11; 요4:4). 이곳은 유대에 비해 낮은 산들이 덜 황폐하고 더 많이 경작되었다. 복음의 초기에 많은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다(행8:1, 25; 9:31; 15:3).

사마리아 사람: 원래 이 말은 사마리아의 거주민을 뜻하였으나 신약 성경에서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와 이방인들의 결합으로 생긴 혼혈 민족을 가리킨다. BC 721sus 아시리아의 살만에셀(혹은 사르곤)은 사마리아와 그 주변 지역의 거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간 뒤 그들 대신 바빌로니아, 구다, 아바, 하맛 등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기 살게 하였고 그들은 거기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피를 섞어 궁극적으로 한 민족이 되고 말았다(왕하17:24-41).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혼혈 민족이 가증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탄생된 혼혈족은 아시리아에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으며 어느 정도는 참된 종교의 일부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자신들 고유의 이교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다(마10:5; 눅17:16-18).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유대인이므로 그 일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스4:1-24) 그것이 거부되자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유대인들을 고소하였고(스4:4; 느4:1-23) 또 신27:11-13의 모세의 명령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백성의 반은 그리심 산에 서서 레위 사람들이 낭독하는 언약에 아멘으로 응답하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그 산에 성전을 짓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희생 예물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원래의 제단은 거기가 아니라 에발 산에 있었다(신27:4; 수8:30-35). 또한 그들은 모세오경을 제외한 유대인들의 다른 정경들을 버렸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민족적 감정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눅9:52-53).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란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으며(요8:48) 그들과의 모든 관계는 철저히 금지되었다(요4:9). 그리심 산의 신전은 주전 129년에 히르카누스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그리스도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귀하게 여기고 민족의 경배 장소로 생각하였다(요4:20-21).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고대하였으며(요4:25)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행8:1; 9:31; 15:3).

4절: 하나님의 시간표(반드시), 수가 성 여인, 많은 사람들 구원

5절: 수가(아마도 세겜 혹은 세겜 근처),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움, 우물, 6시쯤(아마 12시), 여인들이 물 길으러 오는 시간이 아님,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 온 것이 아닌가?

6절: 예수님의 인성 표현

여인과의 대화(7-10)

당시 유대인 남성 특히 랍비가 알지 못하는 여인과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4:27).

그러나 주님은 이런 관습 부시하고 여인과 대화를 나눔

마실 물을 내게 달라(7), 여자는 다른 뜻이 있는지 알고자 함(9)

주님은 다른 의도가 없고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열고자 함, 영원한 생수를 설명하고자 함

지금 여인의 가장 큰 필요: 물, 여기서 대화를 이끌고 나감

야곱보다 더 크냐(11-15)

여인은 마시는 물(10), 예수님은 영적인 물(영생), 니고데모와 동일하다. 다시 태어나는 것, 모태

여자의 말: 야곱보다 더 크냐?(12) 이 우물 굉장하다, 2000년 전, 지금도 물을 낸다.

주님의 말씀(13-14), 영존하는 생명 언급, 생명은 요한복음에만 적어도 35회 이상

여자의 반응(15), 반응은 있지만 아직 진리에 도달하지 못함,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당신은 대언자(16-18)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죄인이라는 고백,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하심(16-17), 나는 남편이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자도 아니다(18). 구약 시대 사람들의 이혼 사유: 가장 큰 것, 간음, 나는 남편이 없다. 진실 고백, 여자의 말 중에 가장 짧은 말, 이미 죄 인정, 이 여인의 말 중에 가장 귀중한 말

죄 문제 회피(19-24)

죄 문제는 더 말하지 않고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 문제

당신은 대언자(19), 주님이 자기를 다 아니까(요2:24), 이제부터 주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설명

예배: 섬길만한 분을 섬기는 것

여자의 관심: 예배 장소(4:20)

예수님의 대답: 예배 방법(4:21-24), 영과 진리로(in spirit and in truth, 23-24절)

21절: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즉 건물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2:19-21).

22절: 그들의 문제,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한다.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는 데서 나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롬10;17)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지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구약성경에서 모세오경만을 받아들여 영적인 지식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들의 예배는 진리가 없는 열광주의 예배였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부를 경전으로 삼고 있었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였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깃들어 있지 않았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통해, 구원자가 유대인, 제자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 한국의 구원자는 다 가짜다.

요한복음의 핵심: 모든 것이 바뀌는 새 시대, 새로운 희생물(1;29), 새로운 성전: 우리가 성전(2;19-21), 새로운 출생(3;1-17), 새로운 물(4:11), 새로운 예배(23-24), 새로운 창조물(고후 5:17)

23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주일성수, 십일조, 헌금 등 중요하지만 영과 진리로 에배하지 않으면 허사이다.

영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다(24). 그래서 성령 하나님님과 교감하는 예배, 형식만 강조하는 구약식 에배 No!

예배는 한 사건을 기대하며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위이다.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대하7:1-2; 11-12; 행2:47; 4:29-31).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정결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임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고 성별된 시간과 공간을 상실하였다.

예배: 하나님의 속죄 행위를 통해 정결케 된 자신의 백성을 다시금 거룩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성령님은 죄와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해 증언한다. 죄인의 마음에 일하심으로 변화가 생기게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 세상을 향해 주신 사명을 생각나게 하신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과 관계 있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신다.

죄를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불신자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시고 냉담한 사람의 마음에 영적 열심의 불을 지핀다.

무수한 예배 속에서 도무지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감격하며 찬송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 목적으로 교회를 해야 한다.

진리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경 말씀이 강해되어야 한다.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한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한다.

복음 선포의 최종 결과: 예수님을 아는 것

여자의 말(25),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구원의 열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갈망

주님의 말씀(26). 내가 바로 그다.

그리고는 곧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 선포(29)

여자가 곧바로 주님께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지식, 연결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기다리시며 설명, 5분 10분 설명하고 영접하라고 보채면 안 된다.

이해가 되어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샬롬

결론

1. 새 시대가 온 것을 아는가?(21)
2. 경배의 대상을 아는가?(22)
3.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4.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인가?